

국내 종합대학 지적학과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urriculum of the Cadastralogy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y

강 한 빛** · 이 범 관***

Kang, Han Bit · Lee, Beom Gwa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종합대학 지적학과의 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김영진 교수의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197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내용적 범위는 4년제 대학교 지적학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대학 모두 지적에 대한 물리적·권리적·이용규제적 탐구 영역에 비해 가치적 탐구 영역에 대한 교과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 대학 모두 자격시험과 취업을 위한 관련 영역의 교과목에 집중한 것이며, 또한 교수 진공 중심의 교과목 편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대학 모두 제4차 산업에 대비한 지적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 되었으며 둘째, 지적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교과목 개설이 요구되었다. 셋째, 지적학이 국토학, 영토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되었다. 넷째, 이미 개선된 교과목의 명칭도 한국지적학회 등 지적전문가, 지적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표준화된 명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시험과목과 취업관련 시험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적학과, 교육과정, 지적학, 지적교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icula of the Cadastralogy Department in the domestic universities to draw problems based on that and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is purpose, the temporal range was set from 1977 when Professor Kim Young-jin's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Land and the Cadastralogy Department" was published, to the present, the spatial range was set to Korea, and the range of contents would be proposing improvement directions with curricula in the Cadastralogy Department in three 4-year universities. As for the methods for investigation,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net research were used, and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e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 본 연구는 2019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정희원·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E-mail: aszeg3003@naver.com)

*** 정희원·교신저자,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E-mail: lbg4338@hanmail.net)

that all three universities had insufficient subjects on the section of exploration of value of cadastre compared to the sections of exploration of physics, rights, and regulation of use. It was noted that all the three universities concentrated on the subjects in the related areas for qualifying examination and employment, and it was because of the organization of subjects centered around the professors' majors.

As a result of the study, improvement direction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all the three univers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up Cadastrology-related subjects to get read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up subjects to utilize cadastral data as big data;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up subjects so that Cadastrology can serve as studies of national land and territory; and fourth,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up standardized names even for the subjects already improved, through discussions among the experts and scholars of Cadastrology in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etc. and to make those subjects for qualifying examination and employment-related examination based on this.

Keywords : Department of Cadastre, Curriculum, Cadastrology, Cadastral Education

1. 서 론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지적학계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드론을 비롯한 현대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빅데이터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학은 1974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처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개설되었다. 지적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교과목이 최초로 편성된 것은 1977년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의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해 197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강원대학교 지적학과이다. 강원대학교 지적학과는 1984년 3월 학과명을 토지행정학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6년 부동산학과로 개명되었다.

1997년 개설된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는 2007년 공간정보학과로 개명되는 등 국내 대학 지적학과들이 생존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

존 방법을 찾고 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중 지적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는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청주대학교 지적학과로 총 3개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현존하는 지적학과의 모습이 설립 당시의 학과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역할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적학과 교육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김영진 교수의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197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며, 내용적 범위는 4년제 대학교 지적학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記述)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선행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영학은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이라는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적교육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지적교육의 방향 제시하였으며,¹⁾ 김종훈은 “한국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지적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²⁾, 강장화는 “지적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³⁾에서 지적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적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적교육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원리를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구영역 별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론적 고찰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의 개념

현재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1946년 9월 20일 「중등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배당」이 개정되면서 ‘교수요목’이라 불리었으며, 1954년 4월 20일 「교과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면서부터는 ‘교과과정’이라 불리다가 1963년 2월 15일 「교육과정령」이 공포되면서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⁴⁾이다.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단순 교과에 관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수학여행·친구와의 토론 등 생활경험을 포함한 개념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었다.

2.1.2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리

교육기관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병선은 시대성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개인과 사회의 융화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등을 주장⁵⁾하였고, 김원희는 학습자와 사회의 필요의 조화, 일관성 있는 계획, 학습내용의 계속적인 발전성, 민주적인 조직 구성을 주장⁶⁾하였다. Nixon과 Jewett는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과 현 사회환경에 대한 적합성 및 민주주의 이상의 실현, 중요한 사회적 문제 해결,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과의 배열 등을 주장⁷⁾하였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원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차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발달단계, 사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고자 한다.

1) 김영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6, p.36.

2) 김종훈, “한국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2, p.2.

3) 강장화, “지적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9, p.2.

4) 두산백과, 교육과정 검색.(2019.06.07.)

5) 박병선, 『한국의 교육과정』(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5), pp.25-28.

6) 김원희, 『교육과정론』(서울: 학문사, 1985), pp.163-165.

7) John E. Nixon·Ann E. Jewett,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Philadelphia : W.B. Saunder. 8th ed, 1974), pp.41-44.

2.1.3 교육과정의 필요성

학문 분야의 성숙과 발전은 이론 생성과 교육에 의하여 결정된다. 새로운 이론 및 패러다임의 계속적인 생성 및 비판의 과정과 아울러, 그 학문 분야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핵심적인 개념, 이론 체계, 방법론, 패러다임 갈등의 모습 등을 전수하여 더욱 세련되고 정련된 학문의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육성함으로써 학문 분야는 도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⁸⁾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주며, 체계적으로 학습자에게 학문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2 교육과정과 지적학

2.2.1 교육과정과 지적학의 관계

지적학을 제기한 삼지 원영회는 1972년 지적학을 “지적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지적제도는 인간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설치목적에 따라 세지적제도, 법지적제도, 정보지적제도로 분류되며, 발전되어 왔다. 현대 정보지적제도의 설립 목적은 필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토지정보 수요자에게 가장 신속·정확·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⁹⁾ 따라서 지적학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산물인 지적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대상인 지적제도가 동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 연구범위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학이 학문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고유한 연구영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지적학의 연구대상인 지적제도에서 고유한 연

구영역을 물리적으로는 일 필지로, 내용적으로는 일 필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현상¹⁰⁾으로 한정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지적학의 관계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적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적학과의 교육과정에는 지적학의 연구범위가 표출되어 있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2.2.2 교육과정과 지적학의 연구범위

지적학은 사회과학으로서 특성을 지닌 학문이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듯이 국가마다 다양한 지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마다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 경제, 관습, 민족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적과 등기가 일원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지적학은 각 국의 차별화된 지적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지적학은 각 국가의 국토와 국민과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적학은 한국의 국토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적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갖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에 대한 범주를 정한 것이 연구범위가 됨으로, 지적학의 연구범위를 일 필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현상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현상으로 한정할 수 있다.

2.2.3 지적학 교육과정의 설치목적

1978년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의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해 지적학과의 설치되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지적 분야에는 많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요소가 있었다.

8) 윤병희,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 실태 조사연구”, 「교육과정연구」, 제17권 제1호, 1999, pp.193-194.

9) 강한빛·이법관,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4호, 2018 p.185.

10) 이법관, 『지적학원론』(대구 : 삼지출판사, 2018), p.19.

내무부의 경우 1,597명, 지적공사의 경우 1,626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였다.¹¹⁾ 또한 전문학교 졸업생의 동 계열 진학문제가 있었으며, 토지·주택행정에 대한 공백의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토지·지적분야의 학문을 대학학부에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지적학과가 개설되었다.

국내에 지적학이 개설되면서 지적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2001년에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정보지적을 지향함으로 지적제도의 목표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적학 교육과정의 설치목적은 과거에는 전문 인력수급의 용이함, 동 계열 진학문제 해결을 통한 학문적 진전, 토지·주택행정의 공백제거로 볼 수 있었지만 현재 지적학 교육과정의 설치목적은 제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으로 볼 수 있다.

3. 지적학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지적학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학의 연구범위를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현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적학과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할 때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탐구 영역으로 교과목을 분류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원리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경일대학교 교육과정 현황분석

경일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 소재

한 학교로 1994년 측지공학과가 신설되었고, 2000년 8월 8일 학과명이 측지공학과에서 도시정보지적공학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정보지적공학과가 2005년 5월 10일 확대·개편됨에 따라 부동산지적학과로 신설되었다. 2019년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의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2019년 경일대학교 교육과정

탐구영역	교과목명
복합적	영토학개론
	지적학원론
	부동산학개론
	캠스톤디자인 I
	캠스톤디자인 II
	국토정보관리
	지적전산
	부동산중개및마케팅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실무
물리적	지적CAD이론
	지적CAD실습
	지적기초측량이론
	지적기초측량실습
	지적세부측량이론
	지적세부측량실습
	수치지적및항측이론
	수치지적및항측실습
권리적	지적조사이론
	부동산법규
	지적조사실습
	지적분쟁및조정실무
	지적관계법규
	토지경계론
	부동산경매및권리분석
가치적	부동산입지및시장분석론
	감정평가론
	부동산금융론
이용규제적	도시재생론
	국토및도시계획
	부동산개발론
	부동산정책론

자료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s://rec.kiu.ac.kr/>) 참고작성(2019.06.10.).

11) 김영진,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 1977, p.87.

2019년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의 교수진은 행정학박사 1명, 법학박사 1명, 공학박사 1명, 이학박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전공 3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32과목 중 복합적인 탐구영역은 10과목, 물리적 탐구영역은 8과목, 권리적 탐구영역은 7과목, 가치적 탐구영역은 3과목, 이용규제적 탐구영역은 4과목으로 나타났다.

지적학원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법규, 지적관계법규 등과 물리적 탐구영역의 교과목들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의해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토학개론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여 지적의 학문적 분류의 폭을 넓혔다.

또한, 지적분쟁 및 조정실무 등의 과목은 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2 목포대학교 교육과정 현황분석

목포대학교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 소재한 학교로 1985년 지적학과가 개설되었고 1990년 목포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지적학과도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9년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의 교육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2019년 목포대학교 교육과정

탐구영역	교과목명
복합적	토지와지적
	부동산학개론
	지적학원론
	입지론
	지적전산및토지정보체계론
	토지제도사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통계학
	지도학개론
	지적조사론
	도시행정학개론
	부동산증개론
	지적연습

물리적	측량학입문
	확정측량및연습
	기준점측량및연습
	지적측량실습
	GPS측량
권리적	항공사진측량및원격탐사
	토지공법의기초
	토지사법 I
	토지사법 II
	부동산등기론
	지적법규
	국토관계법규
가치적	부동산투자및권리분석론
	부동산권설칭
	부동산평가이론
	부동산권설칭
	부동산경제학
이용규제적	부동산과세론
	도시계획개론
	도시환경론
	주택정책론
	토지이용계획및설계
	토지정책론
	부동산개발론
도시정책론	

자료 :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landadm.mokpo.ac.kr/>) 참고작성(2019.06.10.).

2019년 목포대학교 지적학과의 교수진은 행정학박사 1명, 공학박사 1명, 법학박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전공 3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38과목 중 복합적인 탐구영역은 13과목, 물리적 탐구영역은 6과목, 권리적 탐구영역은 7과목, 가치적 탐구영역은 5과목, 이용규제적 탐구영역은 7과목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지적 과목을 통해 지적의 입문 난이도를 낮추었으며, 부동산학개론, 측량학입문, 부동산평가이론, 토지사법 I, 부동산평가실무, 토지사법 II 등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분석되며, 기준점측량 및 연습, 토지정보체계론, GPS측량, 공간정보통계학, 항공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등의 과목은 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를 토지제도사라는 과목으로 개설하여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제도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된다.

3.3 청주대학교 교육과정 현황분석

청주대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학교로 1979년 지적학과가 개설되었고 1984년 10월 단과대학이 개편됨에 따라 법정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단과대학명이 변경되었다. 2019년 청주대학교 지적학과의 교육과정은 <표 3>과 같다.

권리적	사회생활과부동산법입문
	시민사회와부동산사법1
	부동산생활공법1
	부동산생활공법2
	부동산증개및실무
	시민사회와부동산사법2
	부동산권원조사론
	부동산공시법연구
민법총칙	
가치적	-
이용규제적	부동산지적정보론
	토지이용계획실습
	부동산지적정책론
	정보화사회의도시와계획

자료 :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s://www.cju.ac.kr/land/index.do>) 참고작성.
(2019.6.10.)

<표 3> 2019년 청주대학교 교육과정

탐구영역	교과목명
복합적	지적학
	공간정보론
	부동산학개론
	컴퓨터매핑시스템
	데이터분석및실습
	인터넷과토지정보
	도시및토지정보체계론
	해양지적개론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공간데이터베이스관리론
	지적행정론
	지적전산학
	지적세미나
물리적	지적측량학
	사진측량학
	토지및지적조사
	확정측량
	GIS1
	응용측량학
	GPS측량
GIS2	

2019년 청주대학교 지적학과의 교수진은 행정학박사 3명, 법학박사 1명, 공학박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전공 3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36과목 중 복합적인 탐구영역은 15과목, 물리적 탐구영역은 8과목, 권리적 탐구영역은 9과목, 가치적 탐구영역은 0과목, 이용규제적 탐구영역은 4과목으로 나타났다.

지적학, 사회생활과 부동산법입문,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부동산생활공법1과 시민사회와 부동산사법1, 부동산생활공법2, 시민사회와 부동산사법2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분석되며, 공간정보론, 컴퓨터매핑시스템, 데이터분석 및 실습, 인터넷과 토지정보, 공간데이터베이스관리론, 지적전산학 등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지적개론을 통하여 경일대학교의 영토학개론과 같이 지적의 학문적 분류의 범위를 넓혔다.

3.4 지적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결과 3개의 대학교 모두 지적에 대한 물리적·권리적·이용규제적 탐구 영역에 비해 가치적

탐구 영역에 대한 교과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일대학교는 전공 32과목 중 가치적 탐구영역은 3과목으로, 목포대학교는 전공 38과목 중 가치적 탐구영역은 5과목으로, 청주대학교는 전공 36과목 중 가치적 탐구영역은 0과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 대학 모두 자격시험과 취업을 위한 관련 영역의 교과목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수 전공 중심의 교과목 편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활방식과 그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원리 중 사회의 요청에 의한 과목개설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현 지적학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9년 홍천군청의 지적직 공무원 9명은 전월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다.¹²⁾ 드론을 통해 빅데이터 구축 기초자료, 고품질의 공간정보 취득 등으로 신속·정확한 의사 결정의 기반이 다져져 더욱 수준 높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910년 토지조사사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측지계¹³⁾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전 국토를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좌표체계를 변환한다고 201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사용이 되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그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 질 것이며, 그에 따른 지적 데이터 전문가도 많이 필요해 질 것이다.

또한, 독도와 이어도 사례¹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영토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영토분쟁의 해결 수단은 전쟁, 양자협상, 외교적 분쟁해결, 법적 분쟁해결 수단이 있는데, 1919년부터 2001년까지 772회의 영토분쟁 중 147회의 영토분쟁만이 종결되었다.¹⁵⁾ 총 83년의 기간 동안 영토분쟁 해결률이 약 1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올바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선 미리 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학과는 사회의 요청에 의한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였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4. 지적학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4.1 첨단 지적조사방법 관련 과목 신설

최근 위성영상, 드론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적조사방법이 연구되면서 지적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지적학과에서도 첨단 지적조사방법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사회가 요청하는 국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4.2 지적 데이터 활용 관련 과목 확대

4차 산업시대가 열리면서 기초 데이터 구축이 매우 중요해지고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적공부의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완료시켜 정확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적학과는 국토정보관리, 지적전산, 공간정보통계학, 공간정보시스템, 공간데이터베이

12) 뉴스페이퍼, “홍천군청(종합), 홍천군 지적공무원 드론 교육생 전원 국가자격취득 쾌거!”, 2019.06.28.

13) 지역측지계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말한다.

14) 강희각, “韓·中·日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pp. 126-130.

15) John A. Vasquez, *What Do We Know About War*(State of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 2012), pp.3-26.

스관리론, 지적전산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데이터 관련 과목들은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만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¹⁶⁾ 따라서 지적 데이터 분석론, 지적 데이터 활용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4.3 영토분쟁 관련 과목 개설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 고토지역(간도, 대마도, 연해주) 등에 대한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고토 지역에 대한 영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 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을 관리·운영해야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고토지역에 대한 지적조사가 타 국에서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으로 인한 지리적 요인 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적관리를 위해서는 영유권을 회복해야 하는데, 영유권은 불변이 아니라 변경되기 때문에 지적학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영토분쟁 연구와 영토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 중 지적학적 측면에서의 연구¹⁷⁾는 부족하고, 영토교육은 2006년도에 경일대학교에서는 독도론, 간도론, 문화와 영토 등의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 축소되어 현재 영토학개론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래세대 지적인들에게 영토관을 확립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영토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토학개론, 국경론, 영토분쟁론, 해외

영토분쟁 사례조사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미래세대 지적인들에게 영토관을 확립시키고, 영토분쟁에 대한 대비를 시켜야 한다.

4.4 과목명의 표준화

3개교의 지적학과 교육과정은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교과목의 명칭이 다르므로 인해 지적교육의 신뢰도 저하 및 시험과목 미반영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미 개설된 교과목의 명칭도 한국지적학회 등 지적전문가, 지적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표준화된 명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시험과목과 취업관련 시험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존하는 지적학과의 모습이 설립 당시의 학과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역할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 배경이었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대학의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김영진 교수의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197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4년제 대학교 지적학

16) 예외적으로 청주대학교는 데이터분석및실습, 인터넷과 토지정보 등의 과목을 통하여 정보지적제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7) 지적학 측면에서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는 이종수,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7, 장계황, “간도의 영토화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3, 조병현, “지적학의 접근방법에 의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8. 등이 있다.

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記述)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대학 모두 지적에 대한 물리적·권리적·이용규제적 탐구 영역에 비해 가치적 탐구 영역에 대한 교과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 대학 모두 자격시험과 취업을 위한 관련 영역의 학과목에 집중한 것이며, 또한 교수 전공 중심의 학과목 편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의 요청에 의한 과목개설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현 지적학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적학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3개 대학 모두 제4차 산업에 대비한 지적관련 학과목의 개설이 요구 되었으며 둘째, 지적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교과목 개설이 요구되었다. 셋째, 지적학이 국토학, 영토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되었다. 넷째, 이미 개설된 교과목의 명칭도 한국지적학회 등 지적전문가, 지적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표준화된 명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시험과목과 취업관련 시험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장화, “지적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9.
2. 강한빛·이범관,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4호, 2018.
3. 강희각, “한·중·일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4. 광병선, 『한국의 교육과정』,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5.
5. 김영진, 「토지·지적학과 설치에 관한 보고서」, 1977.
6. 김영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3호, 2016.
7. 김원희, 『교육과정론』, 서울: 학문사, 1985.
8. 김종훈, “한국 지적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2.
9. 윤병희,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 실태 조사연구”, 『교육과정연구』, 제17권 1호, 1999.
10. 이범관, 『지적학원론』, 대구 : 삼지출판사, 2018.
11. John E. Nixon·Ann E. Jewett,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 W.B. Saunder. 8th ed, 1974.
12. John A. Vasquez, *What Do We Know About War*, State of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 2012.
13.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s://rec.kiu.ac.kr/>)
14.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landadm.mokpo.ac.kr/>)
15.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홈페이지 (<https://www.cju.ac.kr/land/index.do>)

(접수일 2019.07.10., 심사일 2019.07.15., 심사완료일 2019.07.29.)